

유틸리티정보

칼럼 + 교회 상식 + 문화 산책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 St. Ivo(성 이보)



성인명	이보 헬로리 Ivo Helory
축일	5월 19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신부, 증거자, 법률가
활동지역	케르마르탱 Kermartin
활동연도	1253-1303
같은이름	에르완, 이브

법률가의 수호 성인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로 불리며 법률가의 수호성인 성 이보 헬로리(Ivo Helory, 1253-1303)는 프랑스 북부 브르타뉴 지방의 케르마르틴에서 귀족 헬로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인의 부모님은 모두 신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아들 이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라”고 여러모로 가르쳤는데, 성인은 그 교훈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한다.

성 이보는 파리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오를레앙의 대학에서는 법률을 공부했다. 성인은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성인이 되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신심 쌓기와 면학에 몰두했다. 휴가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간호해 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사제가 된 성인은 교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프랑스의 렌(Rennes)과 트리기에(Trguier) 지역에 있는 교회법원과 사회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성인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구제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법정에서 서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하려 힘썼다. 성인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고 법정에 나갔다. 정의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을 먼저 생각하고,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했던 성인은 그들이 부탁하는 사건 일체를 모두 무료로 처리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작성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과부, 고아, 가난한 이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성인에게 따랐다. 정의를 위해 활약하고 불의하게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는 부호들에게 일대 공포감을 일으키게 했으나, 겸손한 성인은 자기 평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도리어 귀찮게 생각하고 현직을 떠나 작은 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동했다.

많은 화가는 성 이보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자주 그렸다. 또한 성인은 그림에서 성직자의 옷보다는 주로 학자의 옷에 판사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탈리아 화가 데펜덴테 페라리(Defendente Ferrari, 1480-1540)는 토리노(Torino) 도시에 있는 린고토 가문의 제단화에 성 이보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 제단화는 아래위가 세 폭으로 구성되었는데, 윗단에는 성 가정(중앙 패널), 성 미카엘 대천사(왼쪽 패널),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오른쪽 패널)가, 아랫단에는 성 이보, 성 그레고리오(왼쪽 패널), 성 요한(오른쪽 패널)이 그려져 있다. 성 이보의 이야기는 제단화의 가장 중심부에 있으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법률적 문제를 관대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판사의 모자를 쓴 성 이보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 왼쪽 뒤의 남자는 왼손에 탄원서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자신의 모자를 벗어 답례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탄원문을 적은 책이 성인 가까이 놓여 있고, 성인은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상징물은 탄원문이 적힌 두루마리나 책이다. 가끔 성인이 참회의 도구로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일생 수많은 덕행을 쌓으며 공로를 세운 성인은 엄격하고 청빈한 삶을 살다가 1303년 5월 19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강론을 마친 후에 선종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시편 103,6)



- 데펜덴테 페라리 작,
《가난한 사람들의 탄원을 들어주는 성 이보》,
1520년, 패널에 유채, 사바우다 미술관, 토리노, 이탈리아

판사의 모자를 쓴 성 이보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 왼쪽 뒤의 남자는 왼손에 탄원서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자신의 모자를 벗어 답례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탄원문을 적은 책이 성인 가까이 놓여 있고, 성인은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상징물은 탄원문이 적힌 두루마리나 책이다. 가끔 성인이 참회의 도구로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사순
제 1 주일

2023년
02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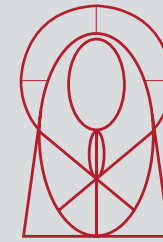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유혹 받는 그리스도》 후안 데 플란데스, 1500년경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미국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창세기2,7-9; 3,1-7
- # 화답송 시편 51(50),3-4,5-6,7,12-13,14와 17(© 3기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19
-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음 마태오4,1-11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 성가 입당 118 봉헌 220 성체 171 파견 122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성육금(마리아)	- 김 스탈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 이대우(베드로) 가족
• 박화성(헬레나)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오용덕(헨리코)	- 한상철(빈첸시오), 노스에디슨 구역
	- 한상철(빈첸시오)
• 배인호(스테파노)	- 김 아가다
• 김영필(안토니오)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조인(로스리오), 조혜남(로스리아)	- 정 테레사, 이명호(비비안나), 채미영(테레사)
• 박규희(루시아)	- 정 테레사
	- 이서형(요안나)
• 정서우(Lauren)	- 켈마, 요안나/스테파노, 사무엘/헬렌
• 바다의 별 Pr.	
• 채희백(바오로)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9명).....	\$1,365
• 교무금.....	이대우(1-2) 임영자(1-2)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께서 시설분과에 \$100, 주보 제작에 \$100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콕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만 14세 이상은 금육재를 지킨다.
 • St. Patrick’s Day(3/17, 금)에는 금육재의 의무가 관면된다.



- ✿ **2차 헌금**
 • 2월26일: 교구청 주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
 • 3월 12일: 유틸리티
-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3/26 주일 (사순 제5주일) 10시 30분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현지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 **2023년 3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재의 예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 후 신부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예비자 교리 모집**
 • 예비자 교리반을 곧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교육분과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허정 교육분과장 732-718-4569 / 사무실 732-258-5998

- ✿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돈까스 판매**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성당 우측 입구
 • 1팩 \$20, 3팩 \$50, 6팩 \$100
 •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복사단 회합**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메타천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사우스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2일(주일) 친교실

- ✿ **2023년 2차 정기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 ✿ **Diocesan Three Day Lenten Mission 메타천 교구 사순절 3일 미션**
 • 축복의 성사를 통해 3일간 진행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6일(월), 7일(화), 8일(수) 오후 6시 30분
 3월 8일(수) (체키오 주교님 미사 7시 30분)
 • 장소: 메타천 주교좌 St. Francis of Assisi 대성당

✿ **창세기 2,7-9; 3,1-7**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19**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 그러나 이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총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총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4,1-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작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재의 수요일의 유래와 영성적 의미

▶ **재의 수요일의 유래**
 교황 대 그레고리오 1세(590-604)에 의해서 재의 수요일이 사순 시기 첫날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황 우르바노 1세(1088-1099)는 모든 신자들이 사순 시기를 맞아 참회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기를 권고하였고, 여기서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뿌리는 예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이날에 전 세계 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순 시기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게끔 권고하였습니다.

▶ **성경에서 살펴본 재의 의미**
 성경의 전통 안에서 재는 참회의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참회예식을 거행했습니다(2사무 13,19).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아!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루카 10,13)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당시의 풍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을 향한 열정**
 재는 불로 온전히 자신을 태운 것으로서 그 시간을 통해 시련과 단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재를 머리에 얹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태워버리고,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거듭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 **정화의 여정**
 남김없이 모든것을 다 태운 재는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 시기의 시작에 재를 머리에 얹는 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정화의 여정을 출발하라는 초대이며, 이러한 정화를 통해 온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 **영원한 생명의 밑거름**
 불타버린 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사순 시기 우리가 머리에 재를 얹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그리고 참회는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바탕이 됩니다

